

불국토·부산여대 '실버와 그린이 마주보는 세상' 행사

어르신께 젊음을 학생들엔 공경심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우리를 귀빈처럼 모셔주고 대접해주시니 정말 수 없이 고맙고 기쁘요. 학생들! 고마워!" 10월 29일 부산여자대학 관광교육센터 연회실, 호텔조리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호텔 음식으로 점심을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활짝한 미소가 넘쳤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종)와 부산여자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실버와 그린의 아주 특별한 경로효도잔치'에 초청된 독거어르신 50분은 대학생 손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과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시작된 '실버와 그린의 마주보는 세상' 프로그램 중의 하나.

행사에 참여한 최진음, 조한음 호텔조리과 교수들 비릇 1학년 학생 80여명과 호텔 푸드 코디네이터와 학생 10여명은 요리와 서빙을 도맡아 하며 어르신들을 모셨다. 하루 전부터 신선한 재료를 골라

장을 보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한 음식 종류는 모두 12가지. 동태탕, 불고기, 닭볶음, 잡채, 해물파전, 탕평채, 호박죽, 떡산적 등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웠다. 특히 호텔 푸드 코디네이터와 학생들은 진로닉, 스크루 드라이버 등의 컵테일을 즉석에서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독거노인 초청 효도잔치
호텔조리학과 80여명 참가
차·피부미용 등과 연계 계획**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맛에 맞을지, 너무 짜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셔서 기분이 좋아요." 서수진 학생(호텔조리과 1)의 말에,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은혜 학생(호텔조리과 1)도 "다 끝나고 나니 너무 뿌듯하다"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더 잘 대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손길로 컵테일을 만들던 서선미,



부산여대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챙겨드리고 있다.

심은희 학생(호텔 푸드 코디네이터)도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순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또한 도우미로 참석한 사회복지과 실습생들과 부산여자대학 졸업생으로 불국토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은 안내와 서빙 등을 맡아 도왔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지며 구수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박수소리가 흥겨움을 더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판소리를 준비했다는 박선영 할머니는 찬양가로 앙콜을 받았다. 이어진 댄스팀의 춤, 학생들로 구성된 댄스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선보이는데 활기 넘치는 춤동작에 박수소리가 더 높아졌다. 학생들의 과격한 춤 동작에 어르신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지만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웃음꽃은 지워줄 줄 몰랐다.

개근복지관 박옥환 관장은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교류는 여러 방법으로 계속 될 것"이라며 "실버와 그린에 참여하고 있는 안경공학과, 차문화복지과, 피부미용과, 제과제빵과 등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학생들에게 어른공경의 마음과 보람을 주는 행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포항 불교계, 시장 퇴진운동 전개

홀리클럽, 개인활동 불과... 공식사과 난색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 편향적 행동에 대한 포항불교계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 시장이 사과 의사를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월 3일 지역 불교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들과 불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이해와 관용으로 봉합해 주기 바란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세계 성시화대회에 명예 준비위원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율이 낮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모임에 종교를 초월해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 재정의 1%를 성시화 대회의 사업 진행에 사용한다'는 준비 안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포항 불교사암연합회가 11월 1일 포항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기독교 기관장 모임인 홀리클럽 탈퇴'에 대해서는 "탈퇴 의사가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신문 지면을 통한 공식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포항지역 불교계는 정 시장이 먼저 홀리클럽에서 탈퇴 후 사과해야 하며, 이러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와 연대해 정 시장 퇴진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봉사는 실천수행의 으뜸이죠"

무량사, '회연' 거주노인 무료급식

창원 무량사주지 무이 신도회는 11월 2일 사회복지법인 '회연'과의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하는 무료급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무료급식에는 '회연'에 살고 있는 어르신과 지역 어르신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량사 신도회 회원 30여명이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준비와 대접을 도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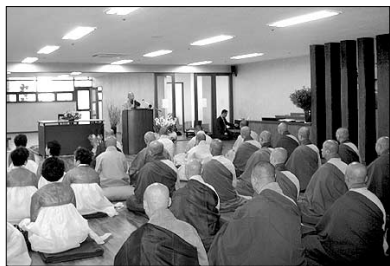
무량사 신도회는 2003년 무량사 개인 행사 당시 인연을 맺게 된 노인복지시설 '회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법회를 열고, 2개월에 1번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 무

료급식 행사를 펼쳤다. 특히 무량사 신도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회연'이 실시하는 간병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수료, 자원 봉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한다. 무량사 신도회는 '회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바람직한 학비와 식비를 지원해왔다.

무이 스님은 "앞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팔래가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이동 팔래방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요가로 몸 튼튼, 좌선으로 마음 튼튼



10월 29일 개원한 청량선원 개원법회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인도 전통요가 시민선방 개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150여 평의 인도 정통요가 시민선방인 '선아행가 요가선원, 청량선원'이 10월 29일 개원했다. 인도 정통요가 특강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매주 300명이 넘는 대구시민들을 팔공산 동화사로 불러들였던 동화사 교무국장 현천 스님이 대구시민들의 호응에 맞춰 개원한 것이다.

스님은 "요가는 의미가 넓은 개념이며 압축하면 선(禪) 그 자체"라고 말한다. "특히 아행가 요가는 200여개의 요가 자세와 14가지 호흡법을 정형화시켜 뱃속 깊숙이 잠재해 있는 긴장을 풀어내며, 좌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번에 개원한 '선아행가 요가선원, 청량선원'은 각종 도구(베개·벨트·의자·로프 등)를 갖춰 몸이 굳은 사람도 쉽게 요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메디탈 요가(질병치료요가)도 가능하다.

현천 스님은 "요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불교 포교의 장으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아행가 요가선원은 몸이 굳은 사람, 비만, 어린이, 임신부를 위한 특별 요가수련과 함께 수요일마다 불교 기초 교리 강좌와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선방과 자유수련실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053)753-1737, www.bksiyengar.co.kr 배지선 기자

팔공산 깃바위에 부처님을 찾는 참배객과 등산객을 위한 아늑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화제다.

선본사(주지 보정)가 최근 깃바위 중단에 개설한 10여 평 규모의 무료차집에는 차집 6개의 좌탁과 20명의 다구 세트가 갖춰져 있다.

법향 느끼며 차한잔... 좋구나!

선본사, 깃바위에 무료차집

선본사 재무 상인 스님은 "다구 세트만 갖춰둔 상태지만 앞으로 불교경전을 비롯한 200여권의 책과 스님들의 법문 테이프·고승열전시리즈 등을 비치해, 녹차를 마시면서 불교방송을 청취한다거나 명상·음악법문을 듣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본사·깃바위 상주 스님들과 신행상담도 가능하다. 배지선 기자

바다와 같이 불법 널리 퍼지길 통영 연화사 보덕암 불사 회향



통영 연화도 연화사주지 도응가 11월 3일 보덕암 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고산 스님, 진의장 통영시장을 비롯한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회향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바다 한가운데 솟아 연꽃처럼 연화사와 보덕암이 전국 불자들의 기도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화도에 연화사가 창건되면서 기도객들과 관광객들이 급증하자, 통영시는 연화도를 포함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055)641-3670 천미희 기자

해동중 다목적 강당 신설

종립학교 해동중학교(교장 권우신)가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다목적 강당을 신설하는 등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갖겠다.

2003~2004년 2년에 걸쳐 진행된 교육경관 개선 사업에 의해 본관 교실, 복도 바닥 보수, 도서관 개실, 컴퓨터실 개조 등의 공사를 끝냈으며 2층 160평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신설했다.

다목적 강당은 1층에 체육교실, 축구부실, 특별실, 운동부 식당, 샤워실 등을 갖추고 2층은 강당으로 학부모들을 위한 특강, 학생들의 공연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10월 29일 열린 다목적 강당 개관식에는 재단 이사장 홍교 스님,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권우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50년이 넘는 전통 있는 사학인 해동중학교가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심성교육에도 더 주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동중학교는 이날 개관식과 함께 가진 진로진학 설명회에서 2005년도 고입설명회와 이영덕 대상학력 개발평가 실장, 박만제 부산진학자도협의회 회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천미희 기자

고산장학회 장학금 전달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혜는 10월 30일 제 9회 해원 경로잔치와 고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연산 1·4동을 비롯 관내 어르신 1천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경로잔치에서는 이응용 할아버지(85)에게 장수상이 김재용·최두여 노부부에게는 행복상이 수여됐다. 이어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잔치가 펼쳐졌으며 해원정사 합창단의 축하 공연, 사물놀이,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한편 고산장학회는 동국대에 재학 중인 인경 스님을 비롯한 21명의 중·고·대학생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천미희 기자

바이오연옥® 기능성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소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 게르마늄: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연구팀의 '수면인체 장애 방지시험', '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 '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 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



의 연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성장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 만 교환 가능합니다

품질 검증 보고서 게르마늄 255ppm	품질 검증 보고서 수면 인체장애 방지시험
품질 검증 보고서 전지파 인체장애 방지시험	품질 검증 보고서 회전전자파 측정시험
품질 검증 보고서 경락순환구동력 측정시험	품질 검증 보고서 신진대사 촉진시험